

MVP 2016. SUMMER(No.46)

번저선교

테러의 일상

이응복, 이정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다

이란 경제제재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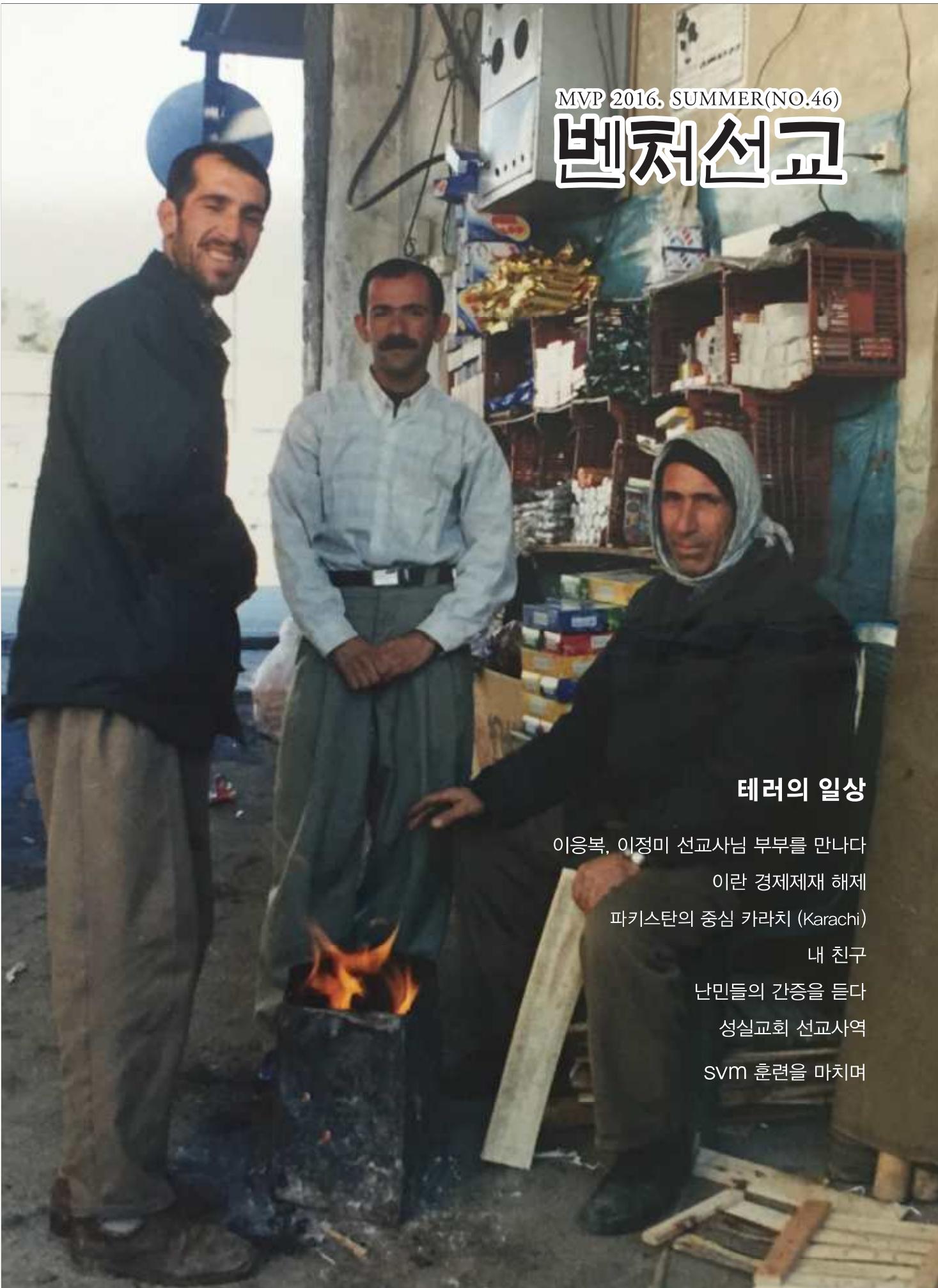
파키스탄의 중심 카라치 (Karachi)

내 친구

난민들의 간증을 듣다

성실교회 선교사역

Svm 훈련을 마치며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롬15:20)



이사장 신동우

실행이사 신종렬 이종훈 이훈민 정우길 조명순 지경준 한정국 한천희 홍성원

후원이사 김만형 박삼열

협동이사 김동해 이수진 이지호

본부장 장선우 | 행정 총무 신길벗 | 훈련동원 총무 전상일

벤처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구영삼

캠퍼스&교회개척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김홍빈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김인애 | 연구원 윤정 전해솔 최현희 | 협력연구원 강원국 김소윤 오요셉 이영배

본부간사 권선주 김민숙 문현심 이현 오요셉 최현미

협력간사 김소윤 김효중 손인종 윤여광

발행인 신동우 | 편집인 장선우 | 교정 김인애 최현희 | 편집·디자인 김민숙 윤여광

발행처 MVP선교회 | 발행일 2016년 7월 21일 | 발행부수 1800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67(방원동 378-11) 그린빌딩 5층

이메일 mvpok01@gmail.com | 홈페이지 www.mvp.or.kr

전화 02)703-1215 | 팩스 02)703-1216

Contents

- 여는 글 04 테러의 일상 | 장선우
-
- 현장 05 이응복, 이정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다 | 최현희
- 09 이란 경제제재 해제 | 이만민
- 13 파키스탄의 중심 카라치 (Karachi) | 김소윤
- 17 내 친구 | 이루리
- 20 난민들의 간증을 듣다 | 김홍빈
-
- 훈련 24 성실교회 선교사역 | 선교부
- 26 SVM 훈련을 마치며 | 이지원
-
- 새소식 28 MVP선교회 새소식입니다
- 30 선교사 소식 및 본부 후원자
- 31 선교사 후원계좌

테러의 일상

테러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세상이 되었다.

지난 7월 14일 프랑스의 유명 관광지 니스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트럭 테러로 8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희생자들은 7개국의 사람들로 그 중 어린이만 10명에 달했다. 무려 130명의 희생자를 내었던 지난 해 11월의 파리 테러의 악몽이 그대로 재현되는 순간이었다. 비록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여행과 출장 등으로 전세계를 오가는 현대에 있어서 누구라도 테러의 현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충격이 더 커졌다.

테러가 일상인 세상이 있다.

니스의 테러가 일어나기 불과 11일 전인 지난 7월 3일,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로 292명이 사망했다. 뒤이어 13일까지 불과 열흘간 3건의 테러가 추가로 이어지면서 사망자 수는 350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뉴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크게 새로울 것은 없는 ‘뉴스’였다.

한국에서 교회 개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쉬울 때가 많다. ‘공동체성의 회복’과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주된 흐름으로 갈 때가 많기 때문이다. 둘 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우리 주위의 일이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주위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신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공교롭게도 테러를 일상으로 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로부터 가장 먼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나라들의 테러를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진 않은지 모르겠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겠는가? MVP



이응복, 이정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비즈니스 선교사로 사역하고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
이응복, 이정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 : 최현희 선교사 /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 연구원

1. 선교에 헌신하게 된 계기와 사역에 관해 말씀해 주세요.

1973년에 여의도에서 빌리 그래함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대회가 있었어요. 대회 중에 선교에 대한 콜링이 있었는데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일어났답니다. 그 이후에 네비게이토 선교회에 들어가서 제자 훈련을 쭉 받았어요. 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네비게이토에 적을 두면서 캠퍼스 개척 선교를 해나갔습니다. 직장인 선교 전략 중에 한국기업이 선교 현장에 공장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있었는데, 저는 한국에서 현장 사역을 기획하고 훈련을 돋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며 기업들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현장에서도 비즈니스와 선교 사이의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더 역동적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기도 하던 중에 사역을 진취적이고 개척적으로 해나가는 선교단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대학생 시절부터 선교에 헌신했고 한 단체에서 쭉 훈련 받고 섬기면서 많은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했는데 정작 저희는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부담감이 있었어요.

2. 현장 사역에 부담을 가지시고 난 후 사역에 전환이 있었나요?

네. 대학생 시절부터 30년 동안 꾸준히 훈련받고, 선교단체와 기업에서 섬기면서 계속 선교 현장 사역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기독교 기업을 통해 선교를 경험하고 돋기도 하면서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나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을하게 되었어요. 선교지에 나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이 새롭게 다가온 것이죠.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선교지에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 던져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며 현장으로 나가서 사역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당시가 2000년대 초중반이었는데 선교 전략의 가장 핫 이슈가 결국은 비즈니스 선교더라구요. 그렇게 된 이유는 선교지 현장이 사실상 장기적으로 선교사들이 있을 수 있는 길이 좁아지니까 그 길을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선교가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쏠리고 있었어요.

3. 비즈니스 선교 현장을 어떻게 알아보시게 되었는지요?

선교지에서 비즈니스를 열기 위해 먼저는 선교 역사와 각 나라의 상황 등을 공부하고, 이란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을 둘러보았어요. 중국의 우루무치,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슈하바드, 터키 이스탄불 등을 다니면서 ‘투르크 민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투르크민족나 실크로드를 따라 분포하는데, 예전에 무역으로 사용되었던 그 길이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든거죠. 여러 도시들을 놓고 생각을 하다보니 나름대로 중앙아시아가 투르크의 중심이라고 여겨지고, 그 중에서는 타슈켄트와 알마티가 관문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당시로서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타슈켄트보다 알마티가 눈에 더 들어왔습니다.

4. 알마티로 정해진 이후에는 어떻게 초기 정착을 하셨나요?

사역지가 일단 알마티로 정해지자, 이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자동차 배터리를 재생하는 기술을 배워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배터리 재생 공장에 가서 두 달간 기술을 배웠죠. 그리고 2008년 1월에 알마티로 갔습니다. 당시 모교회가 담임목사 자리가 공석이어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파송해 줄 수 없었지만, 저희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에 더 미룰 수 없다고 생각되어 담담한 마음으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가족 비자를 위한 여러 작업을 하고, 아내는 6개월 후에 합류했어요.

처음 정착할 때 제가 나이도 있고, 비즈니스 경험과 사역 현장에 대한 조사와 현장에서 적용할 아이템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일을 시작했어요. 언어 배우고 현지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었지요. 가자마자 회사 설립하고 비자 진행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일은 통역을 두고 진행했구요. 회사 설립 이후에 한국 거래처에서 배터리 충전액을 수입해서 들여오는 것이 또 6개월 걸렸어요. 결과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셋팅하는데만 딱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생각보다 여러가지로 진행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오랜 사업 경험으로 그저 바로바로 진행될 줄로만 알았던거지요.

사업에 많은 집중을 했지만 언어 공부를 위해서도 나름 애를 썼습니다. 개인 과외 선생을 구해 일주일에 2번씩 공부하면서 저는 러시아어를 배우고, 아내는 카자어를 배웠어요.

5. 사업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문화 안에서 사업을 해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갔는데, 테스트를 해봐야하잖아요.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버스 회사를 찾아가서 제안을 하니까 테스트를 해보자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막상 부딪히고 보니까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이 카자흐의 상황에 전혀 맞지가 않았어요.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수집해서 재생액을 주입하고 다시 되파는 건데, 한국에서는 폐배터리의 80%가 재생이 됐어요. 그런데 알마티에서는 겨우 15%정도 밖에 재생이 되지 않는거예요.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한국은 시동을 걸어서 안되면 그냥 배터리를 같잖아요. 그런데 알마티에서는 배터리가 완전히 폐기상태가 될 때까지 쓰니까 재생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정말 사업은 현장에 가서 직접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서 계획했던 대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이곳의 상황에 맞지 않아서 포기하고, 대신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컨택해서 차량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배터리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차원으로, 다시 말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개념으로 제안서를 낸거죠. 그때 마침 가장 규모가 큰 버스 회사와 연결되어 테스트를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도 처음에 얘기만 듣고 자기들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를 않으니까 그걸 해서 보여주는 수 밖에 없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회사 설립하고 4개월만에 첫 거래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카작에 들어온 시점부터 거의 1년 반이 흐른거죠.

6. 카작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화충격이랄까요, 우리 문화와 달라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카작스탄 사람들도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요. 그래서인지 변듯하게 보여지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멋지고 폼이 나는 것. 그러다보니 한국에서 환경문제나 자원 절약면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배터리 재생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보통은 배터리를 정말 수명이 다 하고도 더 쥐어짜서 쓰기도 하지만, 일단 우리가 접근하는 ‘재생, 재사용’ 이런 말들이 멋지게 들리지 않는거죠.

또 한 가지는 버스 회사의 부사장과 연결이 되어 우리 사업을 설명하니까 호감을 보여서 일단 시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모아 주면 우리가 가서 재생을 하기로 했는데, 2주 후에 찾아갔더니 하나도 안모아준거예요. 다음에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하는 것을 3개월을 했는데 결국 시험을 못했어요.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부사장이 직원에게 배터리를 모아라 하면 모아지는 건데, 3개월 동안 하나도 안모아지다니.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나중에 카작 사람들과 기업문화를 겪고 보니, 카작스탄의 회사 조직이 한국처럼 위계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직원을 누가 뽑았는지 그 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라인을 통하지 않으면 상부의 지시가 먹히지가 않는거죠.

7. 그럼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국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비즈니스 사역을 구상하면서 겪는 가장 큰 문제가, 자신이 그 동안 한국에서 했던 비즈니스의 경험과 생각만을 의지해서 현지 상황을 예측한다는 것이예요. 선교 현장의 비즈니스는 한국과는 완전히다른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를 평생동안 해왔으니까 가서 하면 되지 뭐 어렵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현지에 가보니 한국의 지식이나 경험을 다 내려놓지 않는 한 거기서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아이템을 확정하기 전에 테스트를 계속 해봐야 해요. 현지어를 충분히 배우면서 차근차근 사람들을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며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 것이죠.

8. 비즈니스 사역을 맡고 있다하더라도 선교사로서 직접적인 교회개척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셨을텐데요?

처음엔 선교단체 파송 없이 교회 파송으로만 현장에 나갔다가 MVP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MVP 김계원 선교사님이 하시는 카작어 학원에서 언어공부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또 다른 MVP 선교사님 가정이 마침 비즈니스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여서 서로 돕기도 했구요. 처음엔 서로 호감을 갖고 교제를 나누다가 차차 사역적으로도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계원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던 현지 교회를 방문해서 돕기도 하며 지내다가 2년여가 지나서 저희에게 MVP 안에서 함께 사역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대부분 선교단체들이 리더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MVP 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30여년 선교단체에서 생활하면서 지나치게 큰 리더의 카리스마에 반감을 가졌던 저희에게는 MVP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와서 함께 하게 되었고, 기존에 선교사님이 하던 교회를 협력해서 사역하니까 교회와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었죠.

저희는 비즈니스와 선교를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훈련되어서 갈등이 없었는데, 다른 선교사들이 나를 볼 때 뭐하고 있느냐라는, 선교사로 보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사실상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인식이 확산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선교사도 교회개척이라든지 제자 훈련의 부분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평계를 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등한시 하거나 소홀히 할 위험이 있고, 저 또한 그런 위험이 항상 있었어요.

저희로서는 김계원 선교사님과 함께 한 것이 참 좋았어요. 서로 격려도 되고 시너지 효과도 있었어요. 사실 선교는 팀 사역이잖아요. 한 교회를 섬기더라도 팀워크가 잘되어서 역할 분담이 잘되어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영향력이 너무 커져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되더라고요. 현지인들도 한국 선교사 중에 누가 영향력이 가장 센가? 이것을 많이 기耽해요. 현지인들이 영리해서 도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알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나에게 유익한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이 잘 되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균형을 잃어요.

9. MVP는 팀 사역 전략으로 3M(3Missionary)사역을 갖고 있잖아요. 비즈니스(BM), 캠퍼스/교회개척(CM), 리서치(RM)로서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자기가 하려는 것을 좀 내려놓아야 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영적인 것, 중요한 것 하고 싶죠.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한다면 팀워크를 할 수가 없어요. 각자 교회개척 해야 하는 거죠. 저희도 네비게이션에 오래 있으면서 일년에 몇 명 전도했나 하는 영적 열매를 카운트 하는 것에 평생 젖어 있던 사람들이라, 카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양육해야만 내 열매로 인식되니까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찾은 것은 '팀워크'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결정하는 것이 저희가 아니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판단을 내려 놓으면 남을 낫게 여기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팀 안에서 다른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면 사역이 훨씬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고 힘들 때 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저희는 기뻤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팀이 있는 것이 기쁘더라고요.

10.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데, 이 기간에 대한 소망을 얘기해 주신다면?

처음 카작에 가서 8년이 지나도록 안식년 시간을 갖지 않고 달려왔더니 7년까지는 괜찮았는데 8년째 되니까 지치더라고요.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중간에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 지난 사역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역을 계획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더라구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지내니까 부모님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시고, 저희도 자녀로서 할 도리를 조금은 하고 있어서 마음이 좋습니다. 형제들도 다 성년이 되어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산지가 오래되었지만, 가족이란 것이 늘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는 관계잖아요.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한국에서 다시 지내니까 형제끼리도 더욱 애뜻해져서 좋아요.

또 다시 나갈 현장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것에도 열심을 내고 있어요. 카작이 사회·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비즈니스로 나가야 그 사회에 보탬이 되고 특히 현지 믿는 분들을 잘 도울 수 있을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MVP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만민 / I국

이슬람혁명 이후, 1979년 11월부터 444일 동안 미국인 70여명을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인질로 억류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로 인해 미국은 이란에 대해 경제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2006년 핵 개발 의혹으로 다시 미국과 EU는 이전보다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하게 되었다. 그 여파로 이란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지난 4년 동안 시장 물가는 400% 가까이 올랐다. 중산층 이하는 몰락하고, 실업률은 공식적으로는 30%대이지만 실상은 40% 가까이 되어 국민들의 삶은 폐해져만 갔다. 미소 짓는 사람 하나 없이 무표정한 그들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삶이 불안한지 실감하게 된다.

2015년 7월 14일,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타결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궁핍해졌던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테헤란 시내 중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기쁨으로 환호하며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2016년 2월 26일, 이란 총선이 실시되었다. 6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인 이번 총선에서 전체 의석 290석 중 개혁파가 보수파를 앞질러 158석으로 과반을 확보하였고 특히 수도 테헤란에서는 30석 모두 개혁파가 당선 되었다.



경제제재 해제 이후 중국과 유럽 정상들이 앞다퉈 이란을 방문하였고, 5월 초 한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역대 최대규모인 300여명의 경제사절단이 방문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로하니 대통령뿐 아니라 최고종교지도자 하메네이와도 면담을 성사시켰다. 경제적으로는 정유, 자동차, 건설, 철도, 철강, 화학, IT등이 수혜 품목으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 동남아는 물론 유럽 전역까지 퍼진 한류열풍을 타고 이란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와 K-Pop에 열광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한다. 이번 대통령 방문으로 테헤란에 '한국문화원'이 설립된다고 하니 한국의 이미지는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한국교회의 이란 선교

1974년 광복절에 테헤란에서 교민 12명이 모여 한인교회가 시작되었다. 1986년 이란 남부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현지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시작한 선교가 출발점이 되어 1999년 한국인 평신도 선교사가 들어오고, 2006년에는 한국인 교민 500명 중 80명에 해당하는 교민이 선교사였다.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 수고를 높이 산다.

기본 선교 전략을 넘어 효과적인 전략으로

필자가 7년 전 이란에 처음 정착할 때 주변 선교사들 사이에서 이란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현지인과 첫 만남을 갖고 6시간 이내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을 심심찮게 들었다. 당시에는 활발한 전도활동과 제자양육이 이루어졌고, 한국교회에서도 매년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1,000여명의 단기여행팀이 이란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활발한 사역은 오래 지속 할 수가 없게 되었다.

2005년 강경보수파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핵 활동 재개와 반(反) 서방 민족주의를 추구하였다. 기독교를 서구 종교라고 생각했던 터라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면서, 기독교 핍박 국가 순위 2위까지 올라섰다(오픈도어선교회). 경제 사정도 어려워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만 가고 있었다.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은 2009년 재선에 성공하였지만 불법선거의혹으로 대학생, 청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정부군의 진압과정 중에 많은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이란정부는 40명의 사망자가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외신은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2009년 현지 가정교회 리더쉽 수양회를 하던 중에 관련된 10여명의 한국인 선교사가 추방 당하는 일이 있었고, 2010년에는 단기여행팀 50여명 추방, 2011년에는 어학연수원에서 단기선교사 3명으로 인해 함께 공부하고 있던 한국인 20여명이 모두 추방되었고, 그 외에 여러 선교사들이 “불법적 선교”라는 이유로 강제 추방되는 일이 계속 있었다. 최근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두 명의 한국인 선교사가 구금되었다가 추방당하는 일이 있었다.

일부 선교사들의 경우이지만 시대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역하다가 감금과 추방을 당한 것을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삼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한 사람의 미숙함으로 남은 현지인과 팀 동료 뿐 아니라 타 단체의 동료, 한인교회와 교민사회, 국가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후임선교사의 길까지 가로 막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부분은 핵 협상 타결 이후, 경제제재 해제와 박근혜 대통령 방문으로 인해 곁으로 보여지는 분위기는 긍정적이지만, 오히려 선교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압박이 있다.



새로운 선교사의 정착

한 때 한국 학생의 접근이 막혀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학생비자 취득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한국기업이 이란 진출을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는 비즈니스의 규제가 완화될 것이고, 선교사의 접근 또한 용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초기 정착을 도와줄 선임사역자가 부족하다. 이란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동안 급변하는 이곳의 분위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선조들의 과오를 줄이고, 더 나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새 전략 접근의 필요

이란에는 현재 300여명의 한국 교민이 있다. 이들 중 40%는 이란 현지인과 결혼한 한국 사람이고, 50%는 거주기간이 2~3년 내외의 한국 기업의 주재원들이다. 5%가 유학생이고 5%가 장기체류를 하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다. 한국 교민 사회도 좁을 뿐 아니라, 이란 내 외국인 사회도 좁기만 하다. 외국인의 행동과 말은 작은 것까지 현지인 사회에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고, 수상하거나 의심이 되는 즉시 신고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현재 이란은 전문 비즈니스 선교사의 접근이 최적의 때라고 말하고 싶다. 또한 각 분야의 기술자들이 환영 받을 수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Target2030 비전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 100만 성도의 한국 교회 선교 부흥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혼신된 글로벌 크리스천의 진출을 독려하고 싶다. 이 혼신된 성도가 한국교회 선교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길을 여시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실 것이다. MVP



파키스탄의 중심 卡拉奇(Karachi)

김소윤 /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 협력연구원

카라치는 터키어로 '검은 도시'라는 뜻으로, 가옥들이 진흙으로 만들어져 바다에서 보면 항구가 검은색을 띠는 데서 유래되었다. 이 지역에 살던 카라치족에서 지명이 나왔다고도 한다. 또 '빛의 도시', '신부의 도시', '콰이드(Quaid)의 도시'로도 불린다. 무하마드 알리 진나(Muhammad Ali Jinnah)는 1947년 8월 14일 인도 독립 당시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영국 자치령 파키스탄의 초대 총독으로 취임하여 국가정책 골격을 세우는데 노력하였다. 카라치는 그가 태어나고 묵힌 곳이다.

카라치 소개

카라치는 파키스탄 남부 아라비아 해에 면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세계 3위, 1만8900명/km²)이며 면적 3,530km²(제주도의 약 2배)이며, 터키 이스탄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무슬림도시이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에는 파키스탄의 수도였으나 1961년 말 수도를 라왈핀디를 거쳐 현재의 이슬라마바드로 옮긴 후 지금은 신드 주의 수도이다.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이 나뉜 것은 사실상 힌두교와 무슬림의 분리로 볼 수 있다. 독립 당시 카라치의 무슬림 인구는 수천 명에 불과했지만, 인도에 거주하고 있던 모하지르족(Muhajir)을 중심으로 많은 무슬림 종족들이 카라치로 대거 이주하면서 일시에 약 30배로



팽창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와 원주민과 이주민들이 맞물려 '즉석에서 생긴' 도시이다.

현재 카라치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끼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이며 파키스탄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이다. 이 곳은 매우 다양한 경제 수준과 삶의 방식, 이데올로기가 공존하고 있으며 일자리와 아이들 교육을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려와 인구가 계속 팽창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금융 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한 여파로 많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특히 지역 간 대립, 돈과 땅을 둘러싼 폭력이 그것이다. 이런 점은 도시의 성장 가능성을 낮추고 직업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언어

우르드어(48.5%), 편잡어(13.9%), 신드어(7.2%), 푸슈트어(11.4%), 발루치어(4.3%), 세라키어(2.1%), 기타 (12.6%)등 여러 언어를 쓴다. 공용어는 우르드어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영어도 많이 사용한다.

종족구성

카라치는 권역별로 종족 및 종파별 구별이 뚜렷한 편이다. 우르드말을 하는 모하지르족(Muhajir)이 48.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그 외 편잡(13.9%), 푸슈트(11.4%), 신드(7.2%), 발루치(4.3%), 기타(14.5%)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

카라치는 국가 총 수익의 70%를 담당하며 국가 전체 제조업의 30%가 이곳에 몰려있다. 무역, 금융, 물류의 중심지이며 파키스탄에서 가장 상업이 발달한 곳이다. 주요산업은 섬유, 의약, 철강, 자동차이고 주요수출품은 밀·보리·콩 등의 곡물 외에 목화·소금·양모 등이다. 수입품목은 직물·기계·금속·설탕 등이다. 카라치는 금융사업의 중심지로 국내에서 제일 큰 증권거래소인 Karachi Stock Exchange가 있다.

문화와 생활

카라치에 파키스탄 대부분의 방송국이 있고, 인도양을 향해 열려있는 항구를 중심으로 인근에 정부기관과 주요기업, 호텔 등이 소재하고 있다. 시내 중심가인 사다(Saddar)는 카펫, 모피코트, 가죽재킷, 뱀가죽 지갑, 실크 스카프, 전국에서 제일 다양한 수공예품을 파는 시장이 있다.

시내 중심 지역을 제외한 외곽지역은 대부분 일반 거주지역이다. 시민 25%이상이 최저 빈곤층 생활을 하며 슬럼가를 형성하고 있다. 카라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슬럼지 8위이며, 북부에 있는 오랑지타운(Orangi Town)은 인도 최대 슬럼지인 다라비(Dharavi)보다 더 큰 슬럼가로 가난한 불법주거지 친지이다. 카라치에는 22개의 슬럼가가 있는데 정부는 이곳을 합법화 한다고 2015년 밝혔다. 슬럼가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향상시키고 상하수도 및 기반시설 개발을 위해 노력중이다.

이 도시에는 4백만 이상의 혜로인 중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약은 길에서 그램당 80센트에



구할 수 있으며 마리화나는 어디에나 있다. 헤로인과 아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제약없이 들어오는데 2009년에는 160톤이 건너왔다. UN은 파키스탄의 아편시장 규모가 120억(\$1.2billion)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사회와 이슈

1947년 파키스탄이 영국에서 독립 했을 때 인도로부터 대량의 무슬림 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영역다툼이 생겼다. 민족적 다양성과 이로 인한 정치적 패권다툼, 테러와 세속주의자 살해, 최근에 자살테러도 가세하여 카라치의 치안은 불안정하다. 정치적으로는 기존의 신드족(PPP당)과 인도 유민인 모하지르족(MQM당)간 상권 및 토지소유권 등을 둘러싼 뿐만 깊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 밖에 다양한 집단 간 갈등으로 표적살인과 강도 등 폭력사건은 1년간 2500여 건이 발생한다. 미화 700~1000달리면 경찰, 집회항의자들, 사업가, 무고한 시민 누구든지 암살하는 ‘표적 살해자’가 있으며 현재 600명 이상 활동 중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대탈레반 군사작전을 피해 북에서 무장 세력이 대거 카라치로 이동해 파슈툰족 거주지에 은신하고 있다. 그 수는 3백만 명 이상이며 알카에다와 연계하여 수시로 테러하는데 이는 카라치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파키스탄에는 종교 극단주의자에 맞선 군의 공격 외에도 사회의 변화에 대항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반대가 있다. 사회변화라 함은 반대의견의 증가, 문화와 종교, 민족과 사회다양성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며 정부는 이런 변화에 반대해 왔다. 안전한 공공장소가 감소하거나 탈레반화되는 것은 폭력자체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폭력을 낳는 데에 일조한다고 사회과학자 Ayesha Siddiqua는 말한다. 탈레반화는 우익의 토크쇼와 미디어의 영향으로 바이러스처럼 퍼지며 종교의 역할 등 다양성에 대한 토론을 묵인하고 있다. 많은 파슈툰족이 카라치로 도피하면서 이곳은 파슈툰 텔



례반화의 본거지가 되고 있으며 도시는 이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다. 탈례반화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면을 이슬람의 종교적인 법으로 강요한다는 뜻이다.

1980-90년대는 폭동이 항상 있었고 현재도 끊이지 않는다. 9·11테러이후 알카에다의 영향을 받은 극단주의자들이 소수 시아파 무슬림과 서양인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테러를 일으키고 있다. 수니파 극단주의자들은 지난 5년 동안 도시를 장악하며 종교분쟁과 테러, 마약밀매, 납치를 일삼았다.

전기, 가스, 물 등 기본에너지 부족 등 생활고에 따른 데모도 수시로 발생하며 정치단체의 집회도 폭력화 되는 경우가 많다. 방화의 경우 특정지역을 소유하려는 권력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또 심각한 교통체증이 있고 인프라구축공사 등으로 인한 정전이 잦아 상수도와 전기문제가 큰 이슈다.

정부는 카라치의 소요사태에 대해 심각히 생각하지 않으며 정부와 각 당은 각자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료

카라치시민은 의료보험제도가 없어 의료비가 비싸며 이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치료를 위해 사채업자에게 빚을 지기도 한다. 누구나 의료사업을 할 수 있어 약처방 관련 사고가 많고 이에 관련한 법적 체계가 없다.

종교

무슬림 96.5%(수니80-85%), 기독교인 2.4%, 힌두 0.8%로 파키스탄은 수니 무슬림국가를 자칭하며 문화와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시아파와 극단적인 갈등이 있으며 비무슬림을 차별한다. 수니는 하나파(Hanafi)를 따르고 시아는 이드나 아샤리야 파이(Ithnā 'Ashariyyah fiqh)를 따른다. 카라치에는 적은 수이지만 개신교와 힌두교 공동체도 있으며 조로아스터교의 중심지로 세계 각 국의 종교가 모여있다.

이슬람 무당인 빠르는 일상생활에 깊숙이 관여하여 복을 빌거나 저주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이슬람 성지를 찾아가 소원성취, 병고침 등 문제 해결을 빌며 기도하기도 한다. 카라치의 '망고 빠르', '압둘라 샤 가지'성지가 유명하다. 치안, 질병, 교육, 실직 등의 문제로 사람들에게 많은 두려움이 있어서 코란이 적혀있는 부적 목걸이를 착용하고 다닌다. 이것을 차량이나 럭셔, 아이의 신발이나 자동차 바퀴커버 등에도 매달아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믿고 있다.

교회현황

파키스탄에는 카라치, 라호르, 이슬라마마드 등 대도시 중심으로 가정교회가 약 70%, 건물교회가 약 30%로 전체 약 2,500여 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카라치에 있는 30개 교회의 12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은 편집족과 고아족이다. 우르드어 성경이 있으며, 5개의 성경 통신 지역센타가 있고 파키스탄 성경통신학교에는 10,000명의 학생이 있다. MVP

참고자료

- 주 카라치 대한민국 분관

<http://pak-karachi.mofa.go.kr/korean/as/pak-karachi/policy/overview/index.jsp>



내 친구

이루리 / I국

어림짐작으로 6살은 더 되어 보이는 덩치 큰 아이가 저벅 저벅 가방을 메고 들어와서는 엄마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 저런... 아직 쪽쪽이를 빨고 있구나.

일주일이 넘도록 이란 유치원 현관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 나를 유독 유심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그 아이의 엄마다. 이란 사람들은 대체로 호두 알 만하게 크고 동그란 눈인데 동양인처럼 약간 찢어 진 아몬드 모양의 눈을 가진 그 아이의 엄마. 그래도 사실 우리 보다는 훨씬 큰 눈을 가졌다.

큰 아이를 유치원에 적응 시키느라 아침부터 점심 전까지 3~4시간을 꼼짝없이 교실 문 앞에 앉아서 벌을 선다. 무료함을 달래려고 들고 간 책을 읽다가 중간 중간 고개를 들면 어김없이 그 아줌마와 눈이 마주친다. 처음엔 나한테 웃어주는 건지 아닌지 몰라 얼음같이 굳어 있었는데 여러번 눈맞춤을 하다보니 어색한 공기는 좀 가신 것 같다.

슬슬 아이들이 적응되자 한 두 시간만 있다가 일어나서 오는데 등 뒤로 차가 빵빵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오! 그 쪽쪽이 빠는 아이 엄마다! 큰 길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한다. 흔히 이란 사람들이 예의상 하는 거절(터扈) 한 번 없이 냉큼 차를 얻어 탔다. 지금 생각해도 그게 가장 신기하다. 원래 내 성격상 거절을 했어도 몇 번은 했어야 하는데. 친해지고 나서 보니 나를 며칠을 두고 지켜봤단다. 정말 한국인이 맞는지.. 큰 두 딸이 있는데 제발 먼저 말을 걸고 친해지라고 엄마를 조르고 졸라서 엄마가 노력했고, 그리고 나를 차에 태운 그날 집에 돌아가자 마자 가방을 집어던지고 “캬~그 한국 친구를 차에 태웠다”며 소리치고 환호 했다고 한다. 그렇게 우리 만남은 내 친구 누신 가족의 일방적인 한국인 사랑에서 시작 되었다.

큰 아이가 유치원에 적응 중일 때 같은 반 친구 생일파티에 초대 받았다. 보통 이란 사람들은 파티를 집에서 하는데 이번 초대는 주소 하나를 주고 집이 아닌 파티장소를 찾아 오라고 했다. 지리를 잘 모르는 나를 위해 누신이 데리러 와주었다. 파티 때 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꾸미고 오는 이란 문화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 생일 파티고 더구나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갖는 파티라 치마를 입고 갈 수도 없고 하니, 깨끗한 면바지에 가장 멀쩡한 티셔츠를 입고 갔는데 완전 오叛이었다. 주소만 받아들고 간 곳은 간판도 없는 어느 건물 지하였는데 내가 여태껏 이란에서 본 적이 없는 한 눈에 봐도 아주 세련된 실내 놀이터였다. 백설 공주 복장을 한 밴드들과 페이스 페인팅 그려주는 누나, 아이들 간식을 따로 챙겨주는 이모들까지.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온 아이들. 엄마들은 끈 달린 짭은 미니스커트에 끈으로 묶는 새빨간 롱부츠, 미용실에서 방금 말고 나온 듯한 웨이브를 하고서는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사실 변변한 파티복 하나 있을리 만무한 나로서는 생뚱맞은 차림새가 어색해서 한 쪽 구석에 앉아 파티가 어서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유일한 외국인으로 또 유일한 바지 차림이었던 나에게 말 걸어준, 그나마 수수한 차림의 누신이 없었다면 아마 더 집에 가고 싶었을 것이다. 마음으로 그녀를 얼마나 의지 했는지 모른다.

한 달 후 누신의 아들이자, 큰 아이와 같은 반친구인 푸여의 생일 잔치에 또 다시 초대를 받았다. 지난 번 파티에서의 경험을 기억하고 이집 저집 전화해서 치마, 신발, 악세사리까지 빌려 입고, 신고 최선을 다해 꾸미고는 또 주소 하나를 들고 집을 찾아갔다. 이상하다... 건물 주차장 이름이 푸여다! 임? 상가가 이렇게나 많은 큰 건물이름이? 아니나 다를까 아래의 여러 상가를 다 합쳐서 한 층을 통째로 집으로 사용하는 그 집은 내가 여태껏 본 집들 중에 젤로 큰 집이었다. 집 크기와 화려한 인테리어에 또 한 번 놀란 나와는 다르게 아이들은 이미 신이 났다. 어디서 놀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을 정도니..

내가 봤던 누신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아마도 어느 이란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겉모습 치장하는 것에 그리 관심도 없고 부자로 보여지는

것이 싫었던 것 같다. 신에 대한 열망으로 자신의 몸에 神이라는 문양과, 힌두교의 심볼을 문신으로 새긴 그녀는 한 눈에 보기에도 온 몸으로 신을 열망하고 있는 듯 했다. 집 한켠에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여러 종류의 불상과 천주교의 십자가, 힌두교와 이슬람의 상징물들로 잔뜩 장식 해두고 향을 피우는 제단을 만들어 두었다. 그 제사 의식을 통해 위로 받고자 하는 그녀를 보면 참 안타까웠다.

후에 들은 얘기지만 누신의 남편은 건축업자인데 아주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에게 살해 당할뻔 했었던 다. 항상 둘이 헬스를 다녔는데 운동가는 차에서 약을 탄 음료를 얻어 마시고 의식을 잊은 후 둔기로 머리를 맞아 죽을 지경이 되어 어딘지도 모를 폐허에 벼려졌다가 겨우 살았다는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아들 푸여가 다시 보복의 대상이 될까봐 두려워 애지중지 품 안에서 놓지 못하고 키우고 있는 것이었다.

남편도 신을 위한 헌신으로 치자면 누신에 지지 않았다. 시아 이슬람 국가를 신봉하는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슈러(3번째 이맘 호세인을 애도하는 기간) 기간 동안 건물과 건물 주차장을 내어 주어 어슈러 행사를 섬긴다. 깃발 장식하는 것부터 사소한 모든 것까지 직접 참여하여 진득지휘한다. 절기준비를 위해 1~2주 전부터 준비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거의 한 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이 때는 부자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음식을 나누어 주는 풍습이 있는데 누신 남편은 7~8명의 요리사를 불러 수백명에게 열 흘 동안 매일 밥과 고기반찬을 제공하고, 온 건물에 이슬람 선지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깃발을 달고 동네 사람들이 그 건물 앞에 모여 집회를 할 수 있게 한다. 심지어 남편은 친구라는 이유로 이슬람교도도 아닌데 그 코스를 다 돌며 특급 안내 받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배려 받았다. 덕분에 어슈러 책자의 중요자료를 얻기도 했다.

반면 그녀의 두 딸들은 한국 사랑에 아주 푹 빠져 있었다.



한류 덕에 어딜가나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만 두 딸을 통해 이란 젊은이들에게 그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했던 시간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방영된 인기 프로그램이 하루뒤면 영어 자막 처리가 돼서 나오고 그로부터 하루 이틀 뒤면 이란어 자막이 달린 한국 방송을 볼 수 있다. 물론 속도가 너무 느린 인터넷으로 다운 받는데 하룻밤이 걸리지만...그렇게 나는 한국 방송을 누신의 딸들에게 소개 받았다. 두 아들 키우느라 이미 아이돌이 뭔지도 모르는 나에게 K-POP 가수들과 드라마 주인공들의 생년월일까지 열정적으로 소개하는 누신의 20대 딸들. 한국 연예 기사를 줄줄이 페고 있다. 다른 이란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이 딸들도 이란에서의 탈출을 꿈꾼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해외에 살고 있는 이란 남자와 결혼해 초청 받아서 그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로망이기에 영어 공부는 쉬지 않고 한다. 한국인은 다 이민호처럼 생긴 줄 알고 그런 남자를 소개 시켜 달라니... 참.. 그런 남자는 나도 TV로만 봤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 한다.

매번 누신 집에 갈 때마다 나는 김치, 김밥, 탕수육, 짜장면, 한국식 카레 등 한국 음식을 그 집에서 만들고 친구는 이란 음식(양고기 요리, 가지 요리, 이란식 스파게티 등)을 해서 한 상에서 같이 먹었다. 밥상 머리 우정이라고나 할까? 나중엔 누신이 나에게 김치를 담가다 주었다. 함께 교제를 나눌 동료 사역자가 5명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마음의 친구.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나를 위해 항상 자기가 내 언니라며 이란에서 이방인인 나를 진심으로 대접 해 주었던 친구, 사랑으로 언니 역할을 해 주었던 그 친구가 지금 이글을 쓰면서도 보고프다. 언젠가 누신 언니를 만나러 또 한 번 이란에 가고 싶은 밤이다. MVP



난민들의 간증을 듣다

김홍빈/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글로벌비전교회

간증 1) 청년 “커베”

나는 10년 전 아주 강력한 마약 중독자였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버려진 빈집이 주로 내가 마약을 하는 장소이다. 한번은 너무 많은 양의 마약을 투약한 바람에 오랜 시간 정신을 잃었고 몸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졌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데, 꿈인지 환각인지 누군가가 나에게 “너의 앓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했다. 그 누군가가 나를 잡아준 이후부터 마약을 끊기로 결심하고 중독치료 센터에 들어갔다. 그곳 사람들과 친해지고 얘기 를 나누다 알게 된 사실은 나를 환각 상태에서 일어나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꿈에서 다시금 “나를 신뢰하라”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음성을 들은 이후 부터 나의 마음은 늘 예수님께 고정되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여러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란에서 이스탄불로 왔다. 그곳에서 다시 난민 사무소가 있는 앙카라로 이동해야 하는데, 당시 나로서는 어떻게 가야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나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앙카라로 갈 수 있도록 공항으로 인도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신이 공항에 가야할 일도 없는데 뭔가 강력한 이끌림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나를 만난 것이다. 나에게 그는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독한 마약쟁이로 정평이 나있던 나는 마약을 끊으려고 수많은 시도를 해보았다. 병원도 여러 차례 가보았지만 번번히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마약을 끊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다. 지금은 비록 난민 신분으로 터키에 있지만 예수님은 내 삶의 문을 열고 계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결국 나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까지 변화시키고 계심을 날마다 보고 있다.

간증 2) 이스마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14년 전이고, 그로부터 3년 뒤에는 우리 가정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가정교회 리더인 메티와 함께 테헤란과 마샤드, 카스피해 연안의 도시들을 다니며 믿는 형제들을 격려하고 성경을 배포하는 일을 했다. 하루는 메티 집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흔 명쯤 되는 혁명수비대원들이 총으로 무장하고 들이닥쳐 우리를 위협했다. 내가 들고 있던 사진기를 잡아채서 땅에 던지고 메티의 목에 총을 겨누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아채고는 집안 곳곳을 뒤져서 성경책을 찾아내었다. 그리고 우리 중 4명을 연행해서 각자 집으로 데려가 모든 기독교 관련 자료를 가방에 집어 넣게 하고, 그 가방을 갖고 테헤란의 에빈 감옥으로 끌고 갔다.



나는 가로세로 3미터 정도 되는 방에 26일 동안 갇혀있게 되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독방은 너무나 어두웠다. 이삼일에 한번 씩 매번 8시간에 걸쳐 심문을 받았다. 그들은 나에게 “너가 기독교를 믿든지 안믿든지 상관없다. 너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말해라. 그리고 너처럼 사역하고 있는 목사들의 이름을 대라. 너 집에서 600권의 성경책을 발견했는데, 또 성경을 숨겨둔 곳은 어디인가?” “너가 실토하지 않으면 너의 딸도 이곳에 가두겠다”고 말했다. 메티에게는 그의 아내를 다른 곳으로 시집보내겠다는 위협을 했다고 한다. 그들은 나에게 육체적인 고통은 주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심한 압박을 가했다. 독방에 갇히고 열흘 만에 몸무게가 17kg이 줄었다. 나는 몸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감옥에 갇히고 16일 동안은 너무 두렵고 떨려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 17일째 되는 날 14년 전 처음 나를 믿음으로 이끈 그 목소리가 들렸다. “이스마엘아, 이곳에 내가 함께 있다. 여기 경찰들은 그저 무지한 사람들이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 경찰들은 너에게 어떤 해도 가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에게 물으셨다. “뱀이 토끼나 작은 짐승을 죽일 때 무엇으로 죽이느냐?” 나는 대답했다. “뱀의 독침이 죽입니다.” 그는 “아니다, 뱀을 본 그 두려움이 작은 짐승을 죽게 한다. 두려워 말아라. 나는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숴버린 예수다.”라고 말했다.

그 동안 두려움으로 감고만 있던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니 천사가 날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펄럭이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친양을 시작했고 천사는 큰 소리로 고린도전서 15장 55-57절의 말씀을 선포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날부터 두려움에 멀던 것이 멈추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감옥에서 네가 할 일은 없다. 감옥을 나가서 할 일이 있다.”

그렇게 27일째가 되던 날,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나의 태도에 분노한 정보부에서 특수 지하감옥에 데려가려고 감방 문을 열었는데, 너무나 기진해 있던 나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버렸다. “긴급 상황이야, 빨리 의사를 불러와”라고 외치는 소리가 어렵잖하게 들렸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산소 마스크를 하고 있었고, 의사들은 전기 충격기를 내 몸에서 떼어 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 감독관들을 두렵게 하셨다. 나는 감옥 밖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는 ‘이 죄수가 26일의 수감을 통해 몸무게가 20kg 줄었고, 수감이 계속 된다면 정신분열증으로 스스로 죽을 수도 있다’는 소견을 내리자 정보부는 나의 보석을 허락했다. 내가 종교적 팝박으로 감옥에서 죽는 것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간증 3) 어데르

나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 종교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3번 다녀왔다. 그 중 2번은 고문이 있었는데, 경찰이 자동차 열쇠로 내 얼굴을 그어서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다. 나는 주로 테헤란, 에스파한, 쉬라즈 등 큰 도시들을 다니며 가정교회 모임을 세웠고, 리더 훈련을 했다. 내가 3번째로 경찰에 잡혔을 때, 나를 심문했던 경찰이 이렇게 말했다. “네가 이란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를 죽이려 갈 것이다.” 경찰의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했다. 지금은 난민으로 터키에 있으면서 이란으로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재미삼아 도둑질과 폭행을 했다. 하루는 친구와 다투다가 그를 죽도록 때려서 경찰의 쫓김을 받아 도망 다니게 되었는데, 낯선 도시에서 숨을 곳을 찾아 배회하다가 한 고물상 할아버지를 만났다. 어떤 이끌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할아버지를 만나자 내 입에서 성경이 있느냐는 물음이 불쑥 나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할아버지는 성경이 있다고 했고, 얼떨결에 성경이 내 손에 들어왔다. 사람을 죽였다는 두려움으로 며칠 동안 잠을 잘수 없었다. 너무나도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상태에서 며칠 전에 구입했던 성경이 꾀뜩 생각났다. 무슨 좋은 글이 있나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엄청난 평화가 밀려 왔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한 다음 날, 숨어 지내던 나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다. 나를 걱정해 멀리까지 찾아와 위로해주려는 친구들이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야 하니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했다. 그때 놀란 친구들의 표정을 영상으로 찍어놓았어야 하는데.... 3일 동안 집중해서 복음서를 읽고 난 후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다.

말씀의 감동을 받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테헤란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셨다. 테헤란으로 가면 분명히 경찰에 잡혀 사형 선고를 받을 텐데, 나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어데르, 빨리 테헤란으로 돌아가라!”

한 달 정도의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테헤란으로 돌아왔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친구는 죽지 않았다! 그 친구를 찾아가서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하겠다. 모든 형사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하며 용서를 벌었다. 놀랍게도 친구는 “이제 팬찮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 그 친구가 죽지 않은 것, 내가 용서 받은 것. 이 사건은 나에게 일어난 첫번째 기적이었다.

다음으로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은 알리 슈크라는 이란인 목자를 만난 것이다. 성격이 너무나 거칠어 부모님마저 나를 무서워할 정도였는데, 그로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내 성품이 많이 바뀌어 갔다. 처음에 부모님은 알리 슈크가 어떤 특별한 마약으로 나를 조종한다고 오해를 하고 그를 만나지 못하게 하셨지만, 어느 날 내 손에 성경이 들려있는 것을 보시고는 “우리가 여태까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알라에게도 기도하고, 무당을 찾아가 점을 치기도 했는데 너는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진짜 변화되었구나. 너를 변화 시킨 예수를 우리도 인정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부모님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나는 알리 슈크에게 말씀을 더 배우고 기독교 사역을 하게 되었다. MVP



깜풍치낭 성실교회 현당

성실교회 선교사역

선교가 교회의 ‘사명’이라는 신념으로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가 있다. 선교 집중 10주년을 맞이한 성실교회(김영복 목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성실교회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목회자들과 교인들 모두 교회사역 만큼이나 선교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이 많다.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모든 부서 및 교구가 해외 선교지 한 곳 이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교인이 선교에 동참하기 때문이다.

교회 직분자들은 휴가를 활용해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가 파송 혹은 협력하는 선교사의 사역지를 직접 방문해 격려하고 사역현장의 실태를 돌아보는 ‘순회선교’로 현장을 지원한다. 평상시에도 현지에서 날아온 기도제목을 나누며 매월 3째 주 월요일 전교인이 함께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열방기도회’를 갖는다. 또한 전문인 평신도 선교후보생 발굴을 위해서 선교 훈련 ‘사명’을 진행하면서 현장으로 나갈 날을 준비하고 있다.



교회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은 주로 방학을 이용해 성실교회가 미전도종족 전도를 위해 개최한 교회나 기관으로 비전트립을 떠나 현지 노방전도와 기도집회 등 선교대회를 주최한다. 청년들은 매월 첫 주를 청년교구 선교주일로 정해서 선교 현지의 소식을 나누고 기도하고, ‘커피한잔, 선교헌금’ 운동을 통해서 선교헌금으로 후원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선교 현장 지원은 물론, 해외 현지의 선교 사들을 초청해 목회훈련 및 제자 양육훈련도 매년 진행하고 있다. 김영복 목사는 “선교는 온 교회의 관심이고 비전이어야 하며, 누구나 헌신할 수 있고 헌신해야 하는 사명”이라며 “성실교회는 성령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온 교인이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실교회가 선교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의 뚜렷한 비전 덕분이었다. 1972년 서울 수유동에 성실교회를 개척한 우희영 목사는 2001년 티베트를 시작으로 교인들과 함께 아프리카와 필리핀 등지로 비전트립을 다니며 학교와 교회를 설립하는 등 평신도 선교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1가정 1해외교회 설립’이라는 목표를 세워 모든 교인들이 선교 사명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았다.

65세로 조기 은퇴한 우 목사의 뜻을 이어받아 2005년 담임목사로 위임받은 김영복 목사는 ‘VISION 2020 100’이라는 비전을 세웠다. 2020년까지 해외에 100개 교회 및 기관 설립, 선교사 100명 파송 및 협력, 100개 국내교회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2016년 6월 현재 46곳의 현지 교회 및 기관을 설립하였고, 49명의 선교사를 파송 및 협력하여 후원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교회의 선교사역에 있어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선교 사명을 품고 ‘변화된’ 교인들이다.

김영복 목사는 “중요한 것은 모든 교인이 선교 사명을 공유하고 직접 선교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라며 “다음 세대 또한 복음으로 무장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공동체를 세우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실교회는 MVP선교회와 아주 긴밀하게 동역하는 교회이다. 기존에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미얀마 등지에 선교사를 공동으로 파송하여 성공적으로 사역한 바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키르기즈스탄으로 김이안/정안나 선교사를 공동 파송하였다. 현재 키르기즈스탄은 레몬혁명 이후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선교사역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국가이다. 또한 김이안/정안나 선교사의 합류로 5유닛의 MVP 선교사가 배치됨에 따라 안정적인 팀사역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앞으로도 성실교회와 MVP와의 협력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MVP



SVM 훈련을 마치며

이지원 / SVM 32기

올 초에 교회청년부 단기선교사 프로그램에 지원해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5월에는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사로 1년 동안 현장에 나갈 계획이었다. 현장의 선교사님과 교회 세계선교부와 함께 의논해 나가던 중 MVP선교회 조명순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계기로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점검해 보게 되었다. 사실 1년간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를 지원한 것은 장기 사역에 대한 소망은 갖고 있지만 여전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선교사님은 그 부분을 정확히 보시고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시간을 줄이고 장기로 바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우즈베키스탄 현장의 선교사님과 비자 문제나 거주 문제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의논을 하고 있던 상태라 약간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전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었고, 나가는 시기가 조금 늦춰진다고 해서 그리 문제될 것은 없었기에 SVM 훈련을 반기로 했다.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선교사로 결단하기까지 쭉 교회 안에서만 훈련을 받았는데, MVP선교회의 훈련은 새로운 부분도 많았고 MVP선교회 사역들이 흥미롭게 다가오는 부분들도 있었다. 무엇보다 소수 인원이 훈련에 참여했기에 강사 선교사님들과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 그 동안 받았던 훈련들이 지식적인 부분을 담는 시간이었다면, SVM 훈련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선교의 비전을 키워나가는데 바탕이 된 사도행전 말씀을 훈련기간 동안 묵상하며 조원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즐거웠다.

훈련기간 중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작업은 리서치 파트였다. 선교지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액션데이(Action Day) 발표를 준비하는 등 리서치를 전문사역 영역으로 생각하는 단체답게 리서치 관련 과제가 많았다. 종족 프로파일을 작성하면서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여러 번 들었던 '카라칼파족'의 문제와 필요, 기도제목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액션데이를 기획할 때는 막막한 부분도 있었지만 막상 동대문 거리를 찾아가 타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함께 팀원을 서로 섬기면서 책상머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현장의 생생함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액션데이를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훈련 동기였던 조원들이 선교의 동역자가 되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다.

훈련기간 중 여름에 떠나게 될 단기선교여행팀 모집 광고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고넬료의 초청"이다. 왜 고넬료의 초청일까?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청하여 만나게 하고 그로인해 성령을 받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도 그 땅에서 우리를 초청하는 고넬료의 초청에 함께 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그 동안 사도행전을 수차례 묵상했음에도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올해 초에 계획했던 곳은 우즈베키스탄이었지만, 이번 여름은 SVM 훈련 기간 동안 계속 기도했던 타지키스탄에서 온 고넬료의 초청에 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여행은 훈련의 연장선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확신이 든다.

선교사로 준비되고 현장에 나가기까지의 시간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한치 앞도 모르겠고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는 요즘...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나를 기억하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SVM 훈련과 이어서 고넬료의 초청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린다. MVP

MVP선교회

새노식입니다



1. 열방콘서트

MVP의 열방을 향한 뜨거운 예배 “열방콘서트”는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립니다.

2016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선교동원예배와 소그룹 중보기도모임이 진행 되고있습니다. 4월 21일은 MVP선교회 17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5월 19일은 이란을 위한 소그룹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6월 16일은 가난해결문제에 대해서 소그룹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8월 18일, 9월 22일, 10월 20일 오후 7시 30분 서현교회(합정역 2번 출구) 열방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SVM 32기 수료

2016년 상반기 SVM 훈련(3월 5일 ~ 5월 7일)을 진행하였습니다. 훈련생들이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선교에 구체적인 헌신과 결단을 하고 자신이 속한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선교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3. VTT 13기 수료

2016년 7월 4일부터 7월 9일(1주간)까지 장·단기선교사 합숙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4. 고넬료의 초청

2016년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이현, 이지원, 최누리 3명이 타지키스탄으로 고넬료의 초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5. 국제리더십학교(GLCS)

6월 8일 GLCS에서 열방콘서트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의 비전을 키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6. Mk를 위한 Pray & Play Day

지난 7월 14일, 15일 가평 오륜비전밸리지에서 MVP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놀이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온 아이들이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7. 지역디렉터 회의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역디렉터들과 이사진이 모여 MVP 선교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향후 방향성을 결정하는 전략회의를 하였습니다.

8. 선교한국 참석

선교한국 2016대회가 2016년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세종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대회기간 동안 MVP선교회 단체부스, 난민사역 코디네이터와 맨토, 강사로 섭기게 될 MVP스텝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9.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리사원) 리서치 프로젝트

리사원에서는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중국 신장 우루무치와 키르키즈스탄에 현장리서치를 나갑니다.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MVP선교사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게 된 이번 리서치는 미전도종족 내 교회개척을 위한 선교전략 수립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팀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부 스텝 4명(김인애, 윤정, 최현희, 전해솔)과 현장 선교사들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번 리서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10. 열방하우스 이사

사무실 근처 망원역에서 도보 15분 정도 거리로 열방하우스가 이사하였습니다. 한국에 잠시 머무르게 될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안식공간으로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11. 금식기도회

4월(14), 5월(12일), 6월(9일)에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금식기도는 7월(14일), 8월(11일), 9월(8일), 10월(13일)입니다. 매주 두 번째 목요일에 금식기도가 있습니다. 금식기도는 외부에서 진행 되니 참여하실 분들은 본부로 문의 바랍니다(02-703-1215).

12. 중보기도 팀 모집

MVP선교회의 10개 권역 선교지 및 선교사들을 위한 정기 중보기도회가 매월 첫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MVP본부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회를 이끌어갈 기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본부에 문의바랍니다.

선교사 소식

1. 선교사 동향

- 김이안, 정안나 선교사 가정이 5/14일 키르기즈스탄으로 출국하여 현지적응 중입니다.
- 김승관, 여춘주 선교사 가정이 5/16일 득남하였습니다(셋째 희준).
- 4/1일 V국 이길 선교사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해 급하게 한국에서(4/6~5/2) 무릎인대, 반월상연골판 수술과 치료를 받고 현장에 복귀하였습니다.
- 6/11일 T국의 박동행, 김조이 선교사 가정이 첫째 정민이의 월소판, 호르몬 치료를 위해 귀국하였습니다.
- 6/13일 I국 이만민, 나기쁨 선교사 가정이 출산을 위해 잠시 귀국하였습니다(9월 중순 출산예정).
- 전상일, 차윤주 선교사 가정의 첫째 도준이가 6/23일 첫돌을 맞이하였습니다.
- 성복희 선교사가 지난 6월 17일 딸 수현이 허리측만 치료를 위해 잠시 귀국하였습니다.
- 이계절 선교사의 신간 선교도서(두 갈래 길/CLC 밀알서원/2016. 6. 출간) 서점 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2. 국내 거주 선교사 모임

- 지난 3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카운터 이슬람’을 읽고 현장의 사례들을 서로 나누며 무슬림을 이해하며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 7/18~22일에는 국내 거주 선교사 주최 ‘침, 뜸 한방 강의’가 본부 벤처홀에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3. 이란 사역자 모임

- 지난 6/24, 25일 곤지암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있었습니다. 이종훈, 박용석, 유경희, 장선우, 정순달, 이만민, 나종숙, 신길벗, 이루리 선교사가 참석하여 함께 예배하고 지난 사역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주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년 3월 ~ 5월 본부 후원자

강길용(2) 강상모(3) 과정인(3) 구명옥(3) 권선주(1) 김계바(3) 김성규(3) 김세진(3) 김 솔(3) 김수오(3) 김영복(3) 김영이(3) 김유리(2) 김이안(1) 김정한(1) 김종근(3) 김진철(3) 김현곤(3) 김형복(1) 김화경(3) 노병인(3) 데이빗(3) 박건부(3) 박미애(3) 박상윤(3) 박용신(3) 박희순(1) 방민경(3) 서연주(3) 서호균(3) 신동규(3) 신윤이(3) 신현경(3) 연인흡(3) 오설란(3) 오희순(1) 유경희(3) 유병희(3) 유정수(3) 윤여광(3) 이갈렙(3) 이동근(3) 이동욱A(3) 이동욱B(3) 이보람(2) 이 삭(3) 이승규(3) 이승원(3) 이시형(3) 이여범(3) 이유경(1) 이유리(3) 이응복(3) 이재선(2) 이재준(3) 이종훈(3) 이주용(3) 이지혜(3) 이판호(3) 이 현(3) 이현경(3) 이희정(3) 전해솔(3) 정다은(3) 정서하(3) 정성희(3) 정소라(3) 정소임(1) 정용환(3) 정우길(3) 정정주(3) 정해명(1) 정현실(3) 정현진(3) 조명순(3) 조정주(2) 조희선(3) 지경준(3) 지명준(3) 진 현(3) 최상규(1) 하비나비(3) 하박국(3) 한유경(2) 한 빛(1) 한은영(3) 한천희(3) 흥성원(3) 황두환(2) 황운이(1) 무명(2)

김성준/박아름(1) 김지혜/김지은(3) 이태훈/이태욱(3) 정성진/은연옥(2) 한정국/이경애(3)

(주)에네스산전(3) (주)엠피코퍼레이션(3) 고현교회(3) 공종훈(하영통신)(3) 그소망교회(3) 꿈이있는교회(3)
남서울은혜교회(3) 물댄동산수림교회(3) 분당친구들교회(2) 산돌중앙교회(3) 성실교회(3) 예수비전교회(1)
인천송월교회(3) 임마누엘(3) 조경순(ksttuer)(3) 질그릇티(1)

후원방법

1. 본부 계좌: 국민 012501-04-182812 MVP선교회

2. 전화신청: 070-8260-5518

이사 등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바뀔 경우, 저희 본부로 연락주시면 변경해드리겠습니다.

기도와 후원 늘 감사드립니다.

후원계좌번호 안내

(거래은행 : 국민은행)

MVP선교회 소속 선교사 후원계좌번호를 안내해드립니다. 본부에서의 원활한 재정 관리를 위하여 선교사 후원계좌를 본부가 관리하는 가상계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명단을 확인해보시고, 현재 재정 후원하시는 선교사 계좌번호와 다를 시 아래의 계좌로 변경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324790으로 시작되는 계좌번호는 가상계좌이기 때문에, 국민은행 계좌에서는 아래의 번호로 자동이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농협, 우리, 외환, 기업, 신한은행에서는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외 선교사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324790-29-000395	이삭 열매	모로코	324790-29-000030	김계원	카자흐스탄
324790-29-000254	누사배	미얀마	324790-29-000126	한수아 임하경	카자흐스탄
324790-29-000168	데이빗 드보라	베트남	324790-29-000209	장승리 유열매	카자흐스탄
324790-29-000241	이길 한마음	베트남	324790-29-000027	김순심	키르기즈스탄
324790-29-000337	이복애	베트남	324790-29-000267	박수보	키르기즈스탄
324790-29-000270	신미래	UAE	324790-29-000465	다니엘조	키르기즈스탄
324790-29-000142	하바나바 흥희락	요르단	324790-29-000551	김이안 정안나	키르기즈스탄
324790-29-000072	허드슨 노비비	이집트	324790-29-000100	이갈렙 박은혜	타지키스탄
324790-29-000353	보배	이집트	324790-29-000225	전빌립 김루디아	타지키스탄
324790-29-000478	민슬기 장사라	이집트	324790-29-000296	박동행 김조이	타지키스탄
324790-29-000155	김수오 성복희	이스라엘	324790-29-000014	탁요셉 김사라	터키
324790-29-000283	이만민 나기쁨	이란	324790-29-000098	한밀알 글로리아	터키
324790-29-000548	이계절 이강애	인도	324790-29-000308	김기용 정은미	터키
324790-29-000069	제이콥리 사론박	중국 신장	324790-29-000184	신여호수아 윤사랑	터키
324790-29-000171	김게바 흥알마	중국 신장	324790-29-000212	김소니아	파키스탄
324790-29-000340	염미족 정부홍	중국 신장	324790-29-000085	채열매	국내
324790-29-000407	정해명	중국 신장	324790-29-000238	이바울 고예은	Y회사
324790-29-000481	한빛 누리	중국 신장			

국내사역 선교사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324790-29-000139	한정국 이경애	KWMA / MCC	324790-29-000113	김인애	리사원 원장
324790-29-000043	장선우 정순달	본부장	324790-29-000410	김홍빈 김영미	캠사원 원장
324790-29-000197	신길벗 이루리	본부 총무	324790-29-000436	전상일 차윤주	훈련동원 총무
324790-29-000324	아굴라 브리스길라	벤사원 원장			

국외센터 / NGO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324790-29-000366	이집트M센터	이집트	324790-29-000382	하베스트코리아	타지키스탄
324790-29-000379	모라비안센터	터키			

본부기금 및 산하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012501-04-182812	MVP선교회	본부	762301-04-235022	MVP선교회	청소년 캠프
055201-04-130496	MVP선교회	10권 역기금	762301-04-193960	MVP선교회	벤사원 기금
055201-04-130470	MVP선교회	MK기금	055201-04-130467	MVP선교회	리사원 기금
762301-04-169624	MVP선교회	건물기금	762301-04-193957	MVP선교회	캠사원 기금
762301-04-226167	MVP선교회	간사기금			

계좌이체가 번거로우실 경우, 홈페이지(www.mvp.or.kr)에서 미션플러스(CMS 후원) 신청도 가능하며, 본사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02-703-1215)

2016년

벤처선교훈련학교

www.mvp.or.kr

MVP

봄, 가을 학기 SVM

School of Venture Mission

• 왜 벤처선교인가?

21세기 선교 상황은 우리에게 개척, 도전, 모험을 요구합니다.

벤처선교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전방개척지역의 미전도종족을 향하여
도전정신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모험을 즐기는 것입니다.

벤처선교훈련(SVM)을 통하여서 선교 이론과 현장의 만남, 현장 선교사들의 실제적인 강의,
은사에 따른 팀사역, 최근의 선교동향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열방을 향하여 도전하고 모험하는 벤처선교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장소

32기 | 3월5일 ~ 5월7일, 매주 토요일 (10am - 2:30pm)

33기 | 9월3일 ~ 11월12일, 매주 토요일 (10am - 2:30pm)

MVP선교회 서울본부 벤처홀 | 6호선 망원역 2번출구, 도보 3분

• 신청문의

전화 | 02.703.1215 E-Mail | svmkorea@gmail.com

훈련비 | 25만원(개강 2주전 선등록 시 23만원)

계좌 | 국민은행 762301-04-191966 (예금주:서울 SVM)

• 강사

장선우(MVP본부장) / 신길벗(MVP행정총무) / 조명순(한국형선교개발원 대표)

김홍빈(GCN대표, 캠퍼스&교회개척선교사역개발원장) / 김인애(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장)

구영삼(비지니스선교사역개발원장) / 전상일(MVP훈련총무)

• 강의

선교신학 | 오프닝데이 / 선교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 / 선교동향과 우리역할

선교전략 | 리서치 선교 / 캠퍼스&교회개척 선교 / 비지니스 선교 / 리트릿

선교동원 | Action Day / 선교와 중보기도 / 선교적 공동체

MVP선교회는 1999년 미전도종족 복음화를 위해 설립된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모험, 도전, 개척정신으로 사역하고 있는 최전방개척선교회입니다.